

## 저탄소 녹색성장, '이제는 기업이 나선다!'

- '한국그린비즈니스IT협회' 공식 출범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고 기업의 그린비즈니스 창출·확산을 위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한국그린비즈니스IT협회'의 창립총회 및 축하리셉션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웨라톤 위커펀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현대자동차, 포스코, KT, LG히다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앙일보 등 22개사가 모여 임원단을 구성했다. 또한 협회장으로 팽정국 현대자동차 사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그린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 올해 주요 사업은 ①그린비즈니스IT 홍보 및 교육(리더스포럼, CGO포럼, 교육, 벤치마킹 참관단 운영 등) ②그린비즈니스 정보센터 운영 ③정부 및 국제협력사업(R&D 이슈 발굴, 정책제언, 국제협력 등) 등이다.

창립총회에 이어 개최된 축하리셉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의 국내외 산·학·연·인·정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리셉션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향후 기업 활동의 핵심 전략으로 삼아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고 기업·사회·국가 전반의 '녹색혁신'을 위한 초석을 다지자는 취지의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 실천 선언문'을 채택하고 선포식을 가졌다. '그린비즈니스로 지금 함께 실천하는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한 실천 선언문에서 협회 회원사들은 기업의 그린 담당인원(CGO) 창설, 녹색 R&D 투자 확대 및 인력양성, 기업 간 그린네트 교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천 강령을 채택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치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해법이며, 이는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비전을 공유하고 동참할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저탄소 녹색성장을 민간차원에서 실천해 나갈 한국그린비즈니스IT협회는 녹색성장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의 그린IT협회는 다음날 14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기술 및 그린비즈니스 사업모델 발굴 등 분야에서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팽 협회장은 "그린비즈니스는 에너지·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블루오션 기업 전략으로,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핵심 전략이자 본격화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기업은 기후변화 등 각종 환경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기회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그린비즈니스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새로워진 '금요일에 과학터치'

- 2009년부터 대구 포함해 5대 도시에서 개최 -

한국과학재단에서 추진하는 '금요일에 과학터치'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변경하여 시행한다. 변경하는 내용은 개최장소를 참석자의 접근성과 강연 환경을 고려하여 바꾸고, 강연시간도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했다. 그리고 강연에 대한 내용도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주제로 본 강연만 진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참석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본 강연 전 30분 동안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신기하고 재미있는 과학기술을 주제로 30분 간의 도입 강연을 추가했다.

한국과학재단 관계자는 "금요일에 과학터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의 시행을 통해 국민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을 고취

시키고, 해당 지역의 과학기술 교육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고, 지역 고유의 과학기술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요일에 과학터치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 사람,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필요한 사람, 과학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채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과학지식 확산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 수돗물 더 깨끗해지고 건강해 진다

환경부는 수돗물 개선을 위해 감시 항목이 지금까지 55개 항목에서 소독부산물인 브로모디클로로메탄과 디브로모클로로메탄 2개 항목을 신설하여 57개로 늘려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염소소독에 의해 생성되는 소독부산물인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동물실험에서 신장 선종과 신암, 간세포 선종과 신암, 대장 종양을 나타내며,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동물실험에서 간 종양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 7월부터 수돗물의 대표적 이취 물질인 지오스민과 2-MIB 등 2개 물질이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시행된다.

## 현 중3 학생이 응시하는 2012학년도부터 수능 개편

- 응시과목, 출제범위 등 변경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응시하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적용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및 응시체제 개편안을 다음과 같이 확정·발표했다.

사회 및 과학탐구영역의 최대 응시과목 수는 현행 4과목에서 3과목으로 1과목 축소되고, 직업탐구영역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최대 3과목이 유지된다. 또한, 지난 2007년 2월 개정고시된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라 수리영역의 경우 '가' 형은 수학 I·수학 II·적분과 통계·기하와 벡터에서, '나' 형은 수학 I·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된다. 평가원은 "행정 예고한 시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을 교과부장관 자문위원회인 수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차 심의하여 지난 12월 16일 행정예고한 시안대로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수능 출제 및 응시체제 개편 내용》

영역	현행	변경
탐구영역	사회탐구 : 최대 4과목 과학탐구 : " 직업탐구 : 최대 3과목	⇒ 사회탐구 : 최대 3과목 과학탐구 : " 직업탐구 : "
수리영역	<'가' 형> - 필수 : 수학 I (8), 수학 II (8) - 선택 : 미분과 적분(4), 확률과 통계(4), 이산수학(4) 중 1 <'나' 형> - 필수 : 수학 I (8)	⇒ <'가' 형> - 필수 : 수학 I (6), 수학 II (6), 적분과 통계(6), 기하와 벡터(6) <'나' 형> - 필수 : 수학 I (6), 미적분과 통계 기본(6)

시안에 대하여는 10여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수리영역 출제 범위 변경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이 많았고, 탐구영역의 최대응시과목 수에 대해서는 현행 4과목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의견과 3과목으로 축소하는 시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유사한 비율로 제출되었다.

한편, 탐구영역의 최대응시과목 수가 축소됨으로써 2012학년도 수능시험부터는 전체 수능시험 응시시간 또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수능시험 시행상의 변경내용은 평가원이 2011년 3월 발표하는 '2012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계획'에서 확정하고, 동년 7월의 '2012학년도 수능시험 공고'에 반영될 예정이다.

## 환경·관광·물류의 남해안 발전 청사진, 속도 낸다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기본구상이 구체화하는 동서남해안권발전 전략수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해안권이 발전전략 중간 보고회를 가지는 등 청사진 마련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남해안권(부산, 전남, 경남 3개 시·도의 35개 연안권 시·군·구)이 2008년 12월 말에 발전전략 중간보고회를 열고 비전과 부문별 발전전략을 마련한 데 이어 이를 토대로 한 핵심사업 발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은 남해안권발전 전략 중간용역 보고회를 통해 '동북아의 선벨트, 행복한(SMILE) 남해안'을 남해안권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경쟁력 있는 남해안, 소통하는 남해안, 찾아오는 남해안, 살고 싶은 남해안'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는 섬·습지 등 자연환경의 합리적인 활용, 항만물류 및 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마련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분야별 발전전략을 담은 핵심사업은 1·4분기 중에 확정한다는 방침 아래 이달 중에 관련 기준(안)을 마련하고 사업발굴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핵심사업은 글로벌 대외경쟁력과 다른 선도프로젝트와의 연계, 경제성 등을 고려하고, 국토연구원 등 여러 전문가 및 지역 관계자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해안권 이외에 동해안권은 경북도청에서 관계 시·도 공무원 등이 참석하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가졌고, 서해안권은 이미 용역을 착수했다. 앞으로 동서남해안권별 비전, 부문별 발전전략과 핵심사업 등을 담은 해안권별 발전전략과 핵심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은 금년 말까지 국가계획으로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 확정

- 대덕연구단지 과학기술계 최대의 사업 시동 -

기초과학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 완성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해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9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과 교과부, 지경부, 국토부 등 공무원들로 구성된 기획연구팀의 구상과 폭넓은 여론 수렴을 거쳐 만들어졌다. 계획의 골자는 '세계적 기초과학연구소, 첨단지식산업, 글로벌 정주여건과 문화, 유비쿼터스 기반이 갖춰진 녹색도시'를 거점으로 조성하며, 이를 주변의 연구·첨단산업 기능과 긴밀히 연계, 확장하는 국제적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대덕연구단지 조성 이래 35년 만에 과학기술계 최대의 사업이 시동되는 것이고, 선진 기술 모방전략에서 신기술 창조전략으로 대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20~30년 후의 국가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팀 02-2100-8667)

## 한국형 경영전문대학원(MBA) 만족도 조사 결과

한국형 MBA가 2006학년도 2학기부터 설치·운영 중인 13개 경영전문대학원에 대한 2008학년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07학

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조사는 13개 경영전문대학원의 재학생(1천302명) 및 교수(68명)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을 재학생 이외에 전임교수까지 확대함으로써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시각 차이도 분석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설치한 13개 MBA가 있는 학교는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양대, 동국대, 숙명여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정보통신대이다.

동 만족도 조사는 2007학년도와 마찬가지로 MBA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 학습성과 및 평가, 교육과정과 수업, 학생, 교수, 시설 및 교육환경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재학생 만족도는 MBA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 등 6개 모든 영역에서 2007학년도보다 증가하였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영역별 재학생 만족도의 범위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육과정과 수업 및 학생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경영전문대학원 : <http://mba.mest.go.kr>)

학회 소식				
학회명	행사명	기간	장소	연락처
한국CAD/CAM학회	한국CAD/CAM학회 학술발표회	2. 4 ~ 6	보광 휘닉스파크 한화리조트	02-501-6862
한국과학교육학회	제55차 동계학술회의	2. 5 ~ 7	경인교육대학교	043-231-7223
대한신장학회	제3회 Nephrology Board Review Course	2. 6 ~ 8	서울 팰레스호텔	02-3486-8736
한국암석학회	2009년 심포지엄 '우리 명산'	2. 10	안동대 여학원 시청각실	051-620-6236
한국진디학회	제22차 학술발표회	2. 11	용인 한화리조트	02-453-3786
한국진공학회	제36회 동계학술대회	2. 11 ~ 13	현대성우리조트	02-567-9486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회	2. 12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02-567-3372
한국임학회	정기 학술연구발표회	2. 12	국립산림과학원	02-965-0454
한국광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제2회 정기총회	2. 12 ~ 13	서울시립대학교 정보기술관	02-3452-6560
한국지방자치학회	2009년도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대회	2. 13	한양대 HIT 건물	02-567-3372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학회	제32차 학술대회	2. 13	삼성서울병원	02-744-6841
한국농업기계학회	동계학술대회	2. 19	부산대학교	031-293-2392
대한예방의학학회	동계 심포지엄	2. 20	건양의대(예정)	062-220-4160
대한교통학회	제60회 학술발표회	2. 20 ~ 21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02-564-9201
대한임학회	제1회 동계 워크숍	2. 21	서울대학교치과대학병원 지하강당	02-792-1486
한국초지조사료학회	제35회 심포지엄	2. 26	전북대학교	041-580-6770
한국동물자원과학회	춘계심포지엄	2. 27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	02-562-0377
한국방재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대회	2. 27	고려대학교	02-567-6311